

모래강 내성천 위기...작은 관심이 해결의 열쇠

천성산 지킴이 지울 스님

내성천은 낙동강 제1지류다. 발원지는 탄산 약수로 유명한 봉화군 물야면의 오전 약수. 내성천은 여가서부터 106.29km를 흐르며 봉화, 영주, 예천 지역에 1,814.71km의 유역평야를 형성한 뒤 삼강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산과 산 사이를 휘돌아 굽이지며 흐르는 내성천 하류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경(秘境)이다. 내성천은 한국 하천의 자랑인 모래톱이 가장 발달한 하천이기에 '모래강'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내성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영주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댐이 완공되면 내성천의 중상류가 수몰돼 사라진다. 또, 하류로 운반되는 물과 모래가 줄어들다.

2009년부터 4대강 공사로 인한 강의 변화를 담사해온 '천성산 지킴이' 지울 스님은 현재 내성천 강가에 머물고 있다. 이곳에서 강의 아름다움과 영주댐 건설공사로 인한 변화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다. 종교와전대연구소 옥복연 소장, 전나미 불교상담대학원 교수, 이희숙 서울여대 강사는 7월 14일 경북 영주 내성천 영주댐 현장 근방서 지울 스님을 만나 최근 근황과 생명운동에 대해 들었다.

정리=이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옥복연 소장: 스님께서는 천성산부터 시작해 지금의 내성천까지 자연의 뭉쳐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불보살이라고 칭송합니다. 자연의 생명 보호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지울 스님: 처음 환경 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경남 양산 천성산 내원사에서 수행하던 중에 천성산 습지가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훼손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계기였어요.

지난 3년 동안 낙동강 공사 현장을 해매고 다녔고 수천, 수만의 나무가 베어지는 현장에 서있었으며 그 무너짐들을 두 눈에, 렌즈에 또 가슴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제게 "참, 독하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가 걸어 온 길이 답답속에 달리지 않아야 돌아 갈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복연 소장: 스님은 2001년부터 단식 등 운동을 단행하면서까지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10월경 천성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천성산 웅덩이에는 도롱뇽 알 천지"라며 스님을 비난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지울 스님: 중앙일보에 인공 물구덩이를 천성산 높이라고 보도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천성산에 대한 왜곡된 기사를 30회 이상 실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이 기사들의 이면에는 제주 구름비, 원자력 사업, 새만금 등 삼성의 개발 사업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영주댐 역시 그 연장선 상으로 삼성의 개발이익을 위한 현상유지에 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거죠.

다른 주요언론들은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고 정부기관 등에서는 정책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재생산 하는 거죠.

"천성산 터널 반대로 모두 2조 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

장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했을때도 언론사에서는 단 한 번도 피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인터뷰도 하지 않고 '2조 5000억 원 손실'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 주류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엄청 깊고 어둡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어둠 속에서 제가 살아왔다는 걸 배웠죠.

옥복연 소장: 4대강사업으로 수많은 강들이 피해 처졌는데, 특별히 내성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울 스님: 영주댐이 완공되면 내성천의 중상류가 수몰돼 사라집니다. 또 하류로 운반되는 물과 모래가 줄어들죠. 이는 그동안 낙동강의 정화를 담당했던 필터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성천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도화지에 물이 번지듯 강 전체에 모래가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래의 높이가 6m 이상이라고 해요. 물이 흐르면서 모래알을 굴리고 그 모래가 다시 물의 자정작용을 하면서 맑은 물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1급수의 내성천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 다시 강물의 정화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의 유입이 달라졌고 모래의 자정작용도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모래층은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인데 단 1년 만에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면 개발이라고 하는 작용이 정말 수질정화를 위한 목적인지의 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댐 수몰지역 거주 어르신들을 보세요. 60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보상금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받고 13평 임대아파트로 갑니다. 그들의 삶에 값은 매길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은 괜찮다고 말하세요. 하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남편) 묘지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합니다. 수몰지역에 사는 분들은 영주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지 못했어요. 영주댐사업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설명회 없이



지울 스님은 ... 1957년 경상남도 지리산 기슭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1992년 양산시 통도사에서 은사였던 청하 스님과 함께 출가했으며 1997년 구족계를 받았다. 내원사 선방에서 통도사 말사 신분으로 수행에만 전념했고 산감 소임을 맡으면서 천성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받게 된다. 그러던 중 2001년 4월 천성산을 파헤치는 터널 공사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 받은 것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나서게 된다. 3년 전부터 4대강 공사로 인한 강의 변화를 조사해온 지울 스님은 1년 전부터 내성천 강가에 머물고 있다. 이곳에서 보존문화유산을 시민 기금으로 확보해 온 내셔널 트러스트와 함께 내성천 땅 1평사기 운동을 전개했고, 내성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텐트학교를 진행 중이다. 또한 조계사 경내 컨테이너 박스 전시실인 '공강 모래'를 운영하는 등 내성천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문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http://www.naeseong.org/>

수년간 낙동강 공사현장 렌즈에 담아 대기업 개발사업 합리화 위해 언론사 왜곡 보도 수난 겪기도 낙동강의 필터 내성천 수몰 이대론 안돼

진행했습니다. 뚜렷한 것은 생태 파괴와 오염, 문화재 수몰,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위기뿐입니다.

옥복연 소장: 자연과 뭉쳐서들을 보호하는 것은 불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내성천 모래강살리기운동에 불교계가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지요?

지울 스님: 처음에 불교계에서도 4대강 반대운동을 했지만 결국 4대강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수 스님의 4대강 반대 소신공양만 남았습니다. 한 번은 부산의 한 광장에서 40일 동안 3000배 정진을 했어요. 근처의 사찰에 다니는 불자들이 지나가는데 저를 보면서 "저 스님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러더군요. "불교계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구나"로 평가해주는 것이 아니구요. 인식이 그래요. 우리 사찰 스님만 스님이고 다른 스님은 그냥 저 스님이고. 그러니 무엇이 같이 하려고 해도 잘 안되죠. 종단이나 불교단체에서 동참하기 보다는 개인의 참여가 더 많은 편입니다.

여성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특히 환경 문제 만큼은 여성불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바꾸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복연 소장: 인도에서 일어난 '침코 운동' 같은 거군요. 인도 여성들이 숲의 나무들이 베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나무를 껴안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운동을 통해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고 숲을 살렸습니까.

지울 스님: 그래서 여성들이 생태와 자연을 살리는데 앞장 서야 합니다. 불자라면 더욱 그렇지 않아요. 연기적인 삶. 생명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여성분들이 이해하고 앞장서야죠. 불교를 접하면서 다들 한 번씩 환희지(번뇌를 끊고 마음속에 환희를 일으키는 경지)를 느끼게 되죠. 그 환희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자연입니다. 우리 삶이 촉박하니까 환희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전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아요. 번뇌나 꿈도 별로 없어요. 삶 자체가 단순해서요. 제가 놓인 그 곳에서 오는 인연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청와대 앞에서 천성산 터널로 단식할 때도 저는 제 추억을 만들어 갔어요. 청와대 주변 골목에 핀 나팔꽃이라든가 오래된 집 담쟁이 넝쿨 등을 사진으로 찍는 거죠.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에너지들 현장에서 느끼려고 하죠. 촉박한 삶에서 눈을 돌려 자연을 보게 되면 주변의 무수한 생명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옥복연 소장: 여성불자들이 내성천살리기운동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울 스님: 하나가 바뀌면 그동안 풀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단숨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 열쇠는 불교의 자비, 사랑, 보살행일 것입니다. 또한 여성불자들이 동체대비 사상을 갖고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지속해 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직접 체험 해보는 것도 중요하구요. 말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직접 내성천을 찾아와 눈으로 봐야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지 느끼게 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공사를 멈출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어요.

옥복연 소장: 자연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거칠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불자들에게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울 스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늘 이야기 하지만 나눌 수 없을 때 불행한 것입니다. 여성은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에게나, 이웃에게나 늘 사랑을 베풀죠. 나누는 겁니다. 혼자사시는 옆집 할머니가 부침개 하나를 해도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그 마음. 그런 것이 여성들의 사랑 같아요. 삭막하고 각박해질수록 이러한 여성들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여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때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활동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